

2015 새 설계

황 속 주 순창군수

“친환경 농업·테마형 관광으로 돈 버는 순창”

경제 부흥·여성친화도시 조성

선비길 조성·섬진강 수변 개발

“올해는 민선 6기 순창의 희망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기획이 전환점입니다.”

황속주 순창군수는 시무실에서 ‘선공후사(先公後私)·해원경장(解源更張)’의 사자성을 군정철학으로 제시하면서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는 공익(公益)을 앞세우고, 느슨하고 흐트러진 관행과 비효율을 혁파해 나가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군은 올해 핵심 6대 군정운영 방향으로 ▲순창경제 활성화 등 8대분야 군정 역점시책 추진 ▲지속가능한 농업경영·돈버는 순창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산업 추진 ▲교육·문화·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복지향



정 추진 ▲클린순창·안전순창 만들기를 설정했다.

우선 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을 필두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남녀노소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

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황 군수는 “돈버는 농업경영은 사람이 살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연구센터와 축산 진흥센터를 건립해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시장개방에 맞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순창농업을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테마형 관광산업을 추진해 500만 관광객 시대의 문을 열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복흥 가인연수관에서 생지 훈통재간 역사탐방로 ‘선비길’을 조성하고, 공공승마장 조성사업과 연계된 팔덕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테마여행지로 만든다. 또 섬진강 수변개발과 용결산 자생식물원 조성, 건강장수 과학체험관 개관, 강천산 야간조명 설치,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은 교육·문화·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 넘치는 순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10개면 전체 작은목욕탕 운영 ▲일품공원 조성 ▲군립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황 군수는 “학생들의 교육이 잘되고 어린이 키우기에 좋아야 살기 좋은 고장”이라며 “육천 인제수에 만족하지 않고 사관반 개설 등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이 꿈을 실현해 가는 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건강복지 행정’으로 군민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클린순창, 안전순창’을 구현해 더불어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장성군 ‘평동 포 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동의 없이 이전 가능 유감

광주 지역갈등 유발 중단해야

장성군이 최근 ‘광주 평동 포 사격장 장성이전’(광주일보 1월 29일 1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군은 “국방부의 ‘국방군사 시설 이전사업’ 훈령이 개정돼 평동 포 사격장이 해당 지자체의 동의 없이 이전하는 게 가능해 졌다는 언론보도에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 “전체 면적의 11%가 이미 군(軍)용지로 쓰이고 있다. 현재 기존 군사시설의 소용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신규 부지가 아닌 기존 부지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군사시

설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의회는 물론 군민들과 함께 포 사격장의 이전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광주시가 민선 6기동안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을 선언한 만큼 이같이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군과 광주시의 포 사격장이전에 관한 갈등은 4년전인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광주시는 군과 사전협의 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성 보병학교훈련장 인근에 포 사격장 등 훈련장 이전을 위해 부지 55만평의 매입을 추진 하다가 군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윤정식 군산 플라즈마센터 부센터장

‘유럽 물리저널D’ 편집위원 선정

2017년까지 논문심사 검토

군산 플라즈마기술연구소(센터장 유석재) 윤정식 부센터장이 최근 ‘유럽 물리저널D’(EPJD=The European Physical Journal D) 편집위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1998년 창간된 ‘유럽 물리저널D’는 핵융합에너지의 원천연구인 원자, 분자, 광학 및 플라즈마 물리분야의 유럽 메이저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저널 중 하나이다.

편집진은 3명의 편집 책임자 아래 45명



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s)들로 구성돼 있다. 편집위원들은 전세계에서 원자, 분자, 광학 및 플라즈마 물리분야를 대

표하는 석학들이다. 윤정식 부센터장은 이달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EPJD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결과 검토 및 게재 여부 결정, 학술지 기획 등에 참여하게 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하천정비 현장에서 골재 빼내 불법 축대공사...순천시는 수수방관

25t 트럭 220대 분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개량이권역 정비사업) 대상지인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감독기관인 순천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대룡리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A씨가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 옆 부지 990㎡에 무단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흙과 돌을 가져와 2~7m 높이의 축대를 쌓고 농지를 조성했다.

사업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축대를 쌓아 올린 흙과 돌들이 개량이 권역사업 현장에서 무단으로 방출됐고, 25t 덤프트럭 220차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축대에 사용된 일부 돌은 인접한 하천에

서 가져와 쌓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농지는 하천 옆 평지에 축대를 쌓아 성토한 까닭에 장마 때 붕괴될 경우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크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개량이권역 사업이 현재 중단중이며 불법으로 방출된 흙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A씨는 “축대를 쌓은 돌은 본인의 밭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50차 분량을 파냈 다. 정식 민원이 제기되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하천변에 불법으로 조성된 농지와 축대.

면 원상 복구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 ‘별량면 개량이권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5억을 투입해 고들빼기·동백 가공시설을 비롯

해 마을인길 생태하천 정비, 오토캠핑 산림욕장, 전통예절 효체험 청소년 캠프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내장산공원사무소 해빙기 사고예방 총력

경사지 붕괴·낙석·낙빙 점검

안전한 정규탐방로 이용 당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진범)는 해빙기(2월 15~3월 31일)를 맞아 급경사지 붕괴와 낙석·낙빙, 결빙구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통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는 해빙기 사

전 준비기간(1월 15~2월 14일) 동안 자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낙석·낙빙사고 사전예방 등 내실있는 점검과 사전제거 활동에 나섰다.

유기용 탐방시설과장은 “겨울철 결빙됐던 지반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낙석·낙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국립공원을 탐방할 때에는 탐방객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고, 공원 탐방시 안전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나주시, 혁신산단 400억 채무보증 시의회 동의안 부결

“4.3%금리 시민부담 우려”

나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나주 혁신산단(구 미래산단) 400억원 채무보증 동의안이 부결돼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4.3%(금리4.0%+금융수수료 0.3%) 조달금리에 대해 우려하며, 시민부담으로 이어지는 채무보증에 대한 소통부족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특히 금리에 따른 금

융비용이 과하다며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에 400억 원의 채무보증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담대금 반환청구 소송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2014년 12월 18일 선고일 기준 54억

원과 지연이자 하루 240만원)와 함께 43억원의 공사비 지급, 2월말로 예정된 1400억 원 차관발행일 도래에 따른 금융이자 58억원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채무보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투자 매도 교환, 이해해 갈 물건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농지/임야,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CGV영화관 옆 3층전물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뭉치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력, 7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400만원씩을 꼬박꼬박 받는다!

법원경매, 서구 풍암동 사거리코너 2층 스크린골프연습장건물 414㎡, 동구 동명동 대지1,394㎡ 주거환경정비구역 건물440㎡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